

“철학·종교 기반한 인재양성 필요”

유·불·도 대강백 탄허 스님의 어록



탄허록
탄허 지음
휴 퍼냄
1만2000원



유·불·도 삼교능통 경지 담아
예지·정치 등 5개 분야로 범문 정리

“북극의 빙하가 녹고, 엄청난 해일과 홍수,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본은 완전히 침수된다.”

50년 전 탄허 스님(1913~1983)이 남긴 말이다. 스님은 6·25작전 스승 한암 스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양산 통도사로 남하했다. 울진·삼척 지방에 무장공비가 몰려들기 직전에는 《화엄경》 번역 원고를 월정사에서 영은사로 옮기는 신임을 보이기도 했다.

《화엄경》은 범어로 10조9만5048자이다. 한자로 압축된 분량이 100만자이다. 불교학이 발달한 일본에도 《화엄경》 번역판이 없다. 전세계에서 자국어로 번역한 것은 탄허 스님이 유일하다. 유·불·도 삼교에 능통했던 스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작업이었다.

《탄허록》은 탄허 스님의 어록이다. 책은 스님의 범문을 예지 정치 철학 생사 종교 등 5장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예지편에서는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미래를 내다 본 스님의 혜안을 만날 수 있다. 스님은 한반도가 세계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정치편에서는 지도자의 역량이 국운의 방향타라고 설했다. 스님은 “먹을 게 적은 것보다 공평하게 분배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고 말해 수 십년 전부터 이미 재분배와 복지 중요성을 간파했다.

철학편에서는 불교적 진리관을 ‘하마음’으로 서술했다. 탄허 스님은 “불교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의 본체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생사편에서는 치열하게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유

로이 해결하는 법으로 마음공부를 강조했다. 탄허 스님은 ‘고요한 곳에서 도를 닦는 것은 시끄러운데 쓰기 위함이다’라고 밝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 둘이 아님을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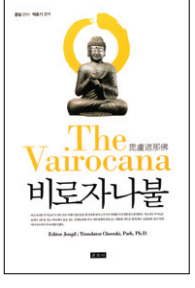
종교편에서 스님은 종교가 곧 나의 마음임을 강조했다. 탄허 스님은 “지금까지 서로 자기만 옳다고 했던 교파들이 문을 열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 상봉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종교간 화해와 대화를 예견했다.

탄허 스님은 생전에 무엇보다 인재양을 걱정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이 돼 전세계로 퍼져 나갈 타이니 미리 철학·종교에 기반을 둔 도덕의식으로 무장한 인재 양성에야 한다는 것이다.

대강백 탄허 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다.

“살아서 한 말은 다 소용없고, 죽는 순간에 공부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비로자나불 범문으로 읽는 화해메시지



《비로자나불》은 비로자나불에 귀의해 40여년을 출가자로 살아 온 종일 스님이 쓴 책이다. 저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가피와 범문을 사바세계의 동반자인 일반인에게도 알리고 싶어 책을 썼다. 책은 저자가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을 빌어

전하는 3대 메시지를 담고 있다.▷인간·자연간 화해 ▷종교 간 화해 ▷지식과 삶의 화해 등.

저자는 “비로자나불은 ‘참나’를 찾게 해주시고 성불하게 이끌어주시는 법신 부처님이다. 고통·극락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로자나불 종일 편저·박춘기 역역 | 운주사 | 1만 2000원 조동섭 기자

정곡스님의 산사 에세이 - 통방산 오두막 소식

날 사랑하여요

경기도 양평 통방산 산골에 오두막 한 채 지어놓고
날짐승, 들짐승, 그리고 자연을 벗 삼아 탁마하며
정진 중인 정곡스님의 산사 에세이

스님은 자연에게서 마음 놓고 받으란다. 자연이 주는 은총을, 혜택을, 아름다움을. 그리고 느끼란다. 느꼈으면 그걸 혼자 감춰두지 말고 나누란다. 스님의 렌즈를 통해 스님이 느낀 자연을 바라보노라면, 자연의 속삭임이 들린다. 스님의 하늘을, 스님의 냇물을, 스님의 꽃을, 스님의 장작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언어는 다시 자연의 음성이다.

글·사진 정곡스님
274쪽 울컬러 | 값 16,000원

서재탐방 | 권영민 단국대 석좌교수

“만해불교전집 발간 인생의 큰 목표”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였다. 또한 한국불교의 근대화를 이끈 선승으로 《조선불교유신론》을 간행하고 불교잡지 《유심(惟心)》을 발간해 불교계의 혁신과 대중화에 앞장 서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다.

만해 스님은 ‘님의 침묵’을 비롯한 시 300여 편을 썼으며 《흑풍(黑風)》 《박명(薄命)》 등의 소설을 펴냈고 당시 조선일보가 폐간되기 전까지 《삼국지》를 번역해 연재했다.

생전에 문학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만해 스님의 문학활동과 사상을 40여 년간 철학해오며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이가 있다. 바로 권영민(64) 단국대 석좌교수다.

“만해 스님이 얼마나 폭넓은 글쓰기를 하고 승려로서 어떻게 대중들에게 접근하려 했는가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권 교수는 만해 스님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고 지난 해 《만해 한용운 문학전집 전6권》(태학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미 1970년대 초 《만해전집》이 나왔지만 주로 한자(漢字) 위주의 연구원들을 위한 자료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권 교수는 기존의 만해전집과 조선일보에 연재하다 폐간으로 중단됐던 《삼국지》와 일본 유학 당시 《화용지》에 발표했던 11편의 한시(漢詩) 등을 추가해 어려운 말은 주석을 달아 새로 엮었다.

만해 스님의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만해 스님은 대중을 끌어안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모든 인간은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어요. 또한 주체를 인식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했습니다. 그래서 만해 스님의 작품이 삶과 인간의 존재에 허무를 느끼고 가치기준에서 대혼란을 겪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권영민 교수는 한국문학의 학술연구와 세계화에 진력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국문학자다. 그는 1971년 서울대 문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받은 뒤 1981년부터 서울대 인문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근대소설론 연구》 《한국계급문학운동사》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한국현대문학사》 등 수많은 학술서를 저술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와 버클리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있을 때 한국문학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2005년에는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개최된 광복 60주년 기념 세계평화시인대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회문화 활동에도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

권영민 교수는 197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활발하게 비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진 문학평론가이기도 하다.

이렇듯 권 교수가 한국문학의 전문가이자 평론가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던 것은 만해 스님과의 인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의 고향과 제가 살던 곳이 가까워서 어릴 적부터 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긴 하지만 스님과 동향(同鄕)이라는 사실이 제가 문학에 눈을 뜨게



권영민 교수는 대학시절 현재방에서 구입한 최남선의 현대시조집 《백팔번뇌》와 정지용 첫 시집인 《백록담》을 아끼는 책이라 보여줬다. 서재에는 1만권 이상의 책이 꽂혀 있다.

만해 스님과 동향(同鄕) 계기로 문학에 눈떠 만해사상 이해하려 禪 관련책 읽고 있어 대중위한 문학콘서트 매일 열 계획

권 교수는 “만해 스님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고 지난 해 《만해 한용운 문학전집 전6권》(태학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미 1970년대 초 《만해전집》이 나왔지만 주로 한자(漢字) 위주의 연구원들을 위한 자료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힘들었다.”

권영민 교수는 197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활발하게 비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진 문학평론가이기도 하다.

이렇듯 권 교수가 한국문학의 전문가이자 평론가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던 것은 만해 스님과의 인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의 고향과 제가 살던 곳이 가까워서 어릴 적부터 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긴 하지만 스님과 동향(同鄕)이라는 사실이 제가 문학에 눈을 뜨게

권 교수는 “만해 스님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고 지난 해 《만해 한용운 문학전집 전6권》(태학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미 1970년대 초 《만해전집》이 나왔지만 주로 한자(漢字) 위주의 연구원들을 위한 자료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힘들었다.”

권영민 교수는 197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활발하게 비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진 문학평론가이기도 하다.

이렇듯 권 교수가 한국문학의 전문가이자 평론가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던 것은 만해 스님과의 인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의 고향과 제가 살던 곳이 가까워서 어릴 적부터 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긴 하지만 스님과 동향(同鄕)이라는 사실이 제가 문학에 눈을 뜨게

해 해방 이전에 나온 책과 잡지, 문학작품 등 1만권 이상의 책이 꽂혀 있다.

권 교수는 한국문학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책읽기를 시도한다.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과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읽으며 현대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한다. 최근에는 스티브잡스의 자서전을 읽으며 한 인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해 성공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현재 권 교수는 한국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4월 17일 문학의 집 서울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첫 문학콘서트를 개최한 것. 그는 이날 사회를 맡아 ‘이상과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상의 작품과 사상을 조명하고 문학평론가들이 대담을 나누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등 대중적인 문학의 장(場)을 만들었다. 권 교수는 “앞으로 매월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주제로 토론과 공연을 겸한 문화행사를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선(禪)에 관한 책들도 읽고 있다. 불교적 지식과 내용을 쌓아 만해 스님의 불교사상을 이해하고 그가 쓴 《불교대전》과 《심현담주해》 등 불교와 관련된 책들을 따로 모아 편찬하기 위해서다.

“《만해 한용운 문학전집》을 출간할 때 불교관련 저술들은 따로 빼 놔습니다. 제가 불교공부가 많이 된 다음에 정리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앞으로 불교공부를 하면서 만해 스님의 불교사상을 정리해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해불교전집을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4~4/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탄허록	탄허	휴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인	쌤앤파커스
5	마음을 열어 빛을 보라	진제	매일경제신문사
6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씨미디어
7	마음수업	이광정	휴
8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불광출판사
9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들
10	친절한 간화선	월암	담앤북스

※ 불서총편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